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저승 우체부 배달희

부연정 장편소설

주제어: 성장, 관계, 우정, 용기, 편지

• 학습 목표

1. 소설 속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내면화할 수 있다.
3. 작품에 드러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전	사후세계에 관하여
2	읽기 중	5-28쪽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정리하기 2. (창의적 읽기+비판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사회현상 살펴보기 3. (추론적 읽기) 뒷이야기 추론하기
3		29-72쪽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4. (사실적 읽기) 표현 방법 이해하기
4		73-95쪽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변화 과정 추적하기
5		96-140쪽 1. (비판적 읽기 + 창의적 읽기) 내용 비판하기 + 작품 내용 수정하기 2. (감상적 읽기) 등장인물과 대화하기 3. (감상적 읽기 +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6		141-167쪽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3. (감상적 읽기) 등장인물과 대화하기
7		168-211쪽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등장인물 비판하기 3.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변화 과정 추적하기
8		읽기 후

1. 다음 화제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1.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1-2. 여러분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나요?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단테의 <신곡>에서 그린 기독교적 사후세계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 참고 영상: [풀버전] 단테가 상상한 사후세계 <신곡>, 설민석이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22yC9XmJ9Y>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불교적 사후세계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 참고 영상: 지옥과 윤회
<https://www.youtube.com/watch?v=vRBXuAAzkDg>

4.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두 종교의 사후세계를 비교해 봅시다.

▶ 참고 영상1.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 잔혹 끝판왕 지옥 top3
<https://www.youtube.com/watch?v=TE8RCct-3KI>

▶ 참고 영상2. 스님과 신부님이 비교하는 불교와 천주교의 사후세계
<https://www.youtube.com/watch?v=iYXMS5U21uw>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승의 구조를 상상하여 아래에 그려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작품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카드를 작성해 봅시다.

	이름 : 달희
	나이 : 14세
	특징 : 저승 우체부로 임명됨. 자신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함. 내향적이고 자신감이 없음.
	이름 : 세희
	나이 :
	특징 :
	이름 : 지우
	나이 :
	특징 :
	이름 : 하은
	나이 :
	특징 :
	이름 : 하루
	나이 :
	특징 :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개는 가게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니까, 학생.”

어디선가 날아온 짜증 섞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멈춰 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달 전에 새로 생긴 피자 가게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피자 가게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을.

“어, 저 사람은 세희 언니잖아.”

가게 입구 앞에서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 만난 세희 언니였다. 피자 가게 주인아저씨가 하루의 리드 줄을 쥔 세희 언니를 향해 샷대질을 했다. 물론 세희 언니에겐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아저씨의 공격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하루는 엉덩이 사이로 꼬리를 감추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것 같았다. 목줄을 바투 권 세희 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모르시나 본데 법적으로 안내견은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법이 어떤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내 가게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손님이 먹는 피자에 개털이라도 들어가면 학생이 보상해 줄 건가? 개가 난동을 피워서 테이블을 엮기라도 하면 학생이 보상해 줄 거냐 말아야. 어?”

세희 언니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언니는 치미는 화를 참으려는 듯 주먹을 바들바들 떨었다.
(24~25p)

2-1. 다음 영상을 보고 점주들이 안내견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 참고 동영상1: “휠체어·안내견 출입 거부”...‘영업방해’ 신고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pkliHeUMcbE&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4> (2분40초부터)
- ▶ 참고 동영상2: 안내견 출입 거부 ‘여전’...조례로 인식 개선?
<https://www.youtube.com/watch?v=xHjxfu4YtyA>

2-2. 영상을 보고 안내견이 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동영상 : 누군가의 두 눈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안내견 준비생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PuiNQ93E20>

2-3. 맹인안내견을 거부하는 현상을 해결할 방법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도 TIP

‘맹인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으로 확장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3. 달희를 대하는 하루의 태도를 고려하여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예상해 봅시다.

※ 복선이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복선이라고 한다. 사건의 인과율을 제공하기 위한 단서로서 활용되는 복선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여 문학 작품을 읽는 재미를 더하는 기능을 한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희 언니는 안내견의 리드 줄을 잡아당겼다. 하루가 내게 꼬리를 흔들느라
늑장을 부리자 언니는 좀 더 강하게 줄을 냐아쳤다. 목소리도 좀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빨리 가자니까! 하루!”

나를 힐끗거리던 하루는 마지못해 걸음을 내디뎠다. 방금까지 깃털처럼 가볍게 흔들리던 꼬리가 아
래로 축 처진 채 말이다. (19p)

그 순간 하루와 눈이 마주쳤다. 젖은 조약돌처럼 새카만 눈동자가 언뜻 반가운 기색을 띠었다. 엉덩
이 아래에 들어가 있던 꼬리가 밖으로 나와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하루의 시선
을 외면했다. 심장이 육신거렸다. (26p)

지도 TIP

첫 만남부터 달희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하루의 태도를 바탕으로 달희와 하루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괄호를 채워봅시다.

- ▶ 달희는 산 사람의 () (으)로 찾아가 망자의 편지를 전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 ▶ 한경희 주무관의 근무지는 ()이다.
- ▶ 달희는 피자 가게 앞에서 하루를 모른 척한 것에 대해 ()을/를 느끼고 있다.
- ▶ “()”은/는 달희가 언제부터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었다.

2. <보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어디까지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달희 씨는 저승의 편지를 이승에 전달하시면 돼요. 원래 죽은 자들은 서천을 건너면서 이승의 기억을 잃기 마련인데, 요즘 저승 상황이 말이 아니어서…….”

저승 상황이 왜 말이 아닐까? 내 의문을 눈치챈 한 주무관이 깊은 한숨과 함께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얼마 전부터 서천을 건너도 기억을 잃지 않는 망자들이 많아졌고, 그 탓에 저승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자세한 건 배달희 씨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망자들의 미련을 풀어줄 방법을 찾다가 편지를 전해주자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난동을 부리지 않고 암전히 저승에 가는 조건으로 딱 한 번, 딱 한 사람에게만 편지를 전해주자는 거죠.” (37~38p)

3. ㉠과 ㉡에 대한 두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나마 초등학교 땐 하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은이는 나와 달리 발이 넓었다. 그래서 하은이를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덩달아 어울리는 친구가 한 명씩 늘었다. 혼자서 밥을 먹을 필요도 없었고, 혼자서 화장실을 갈 필요도 없었다. 하교를 할 때도 언제나 무리를 지어 다닐 수 있었다.

가끔은 먹고 싶지 않은 ㉠햄버거를 먹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가끔은 좋아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봐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번거로움은 혼자자 아니라는 안도감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다. (20p)

“햄버거 안 좋아해?”

내가 얼른 대답을 못 하고 땀을 흘려도 지우는 나를 놀리지 않았다.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어물쩍 넘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를 응시하며 내 대답을 기다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지우를 질투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착한 지우를 질투했다간 내가 나쁜 아이가 되어 버리니까.

“좋아해.”

“다행이다. 그럼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가자. 나 오늘 진짜 햄버거 먹고 싶었거든.”

소현의 말에 지우가 “그래” 하며 내 팔짱을 껴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 소현의 팔짱을 껴다. 우리는 합체한 로봇처럼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교문을 나섰다. (55~56p)

선택1. 달희에게 있어 ㉠과 ㉡은 같다. 왜냐하면

선택2. 달희에게 있어 ㉠과 ㉡은 다르다. 왜냐하면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4-1. 다음 괄호를 채워 작품에 활용된 비유적 표현을 정리해봅시다.

※ 비유법이란?

비유법이란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때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한다.

〈보기〉

물론 내게도 친구가 생겼다. 새 학기 첫날 나는 인형 뽑기 기계 안의 인형처럼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며 얌전히 앉아 있었다.

두근두근. 올해는 누가 내게 말을 걸까 심장이 떨렸다. 앞자리에 앉은 예지일까, 아니면 뒷자리에 앉은 혜인일까? 그것도 아니면 작년에 같은 초등학교였던 소현?

‘혹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면 어찌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던 그때였다.

“달희야, 화장실 같이 갈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마침내 선택을 받은 나는 다행히 올해도 같이 다닐 친구가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흘렸다. 그러다 금세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지……우?”

나를 부른 친구는 다름 아닌 지우였다. 〈중략〉 지우는 어떤 인형이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인형 뽑기 기계 안엔 지우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인형들이 아주 많았다. 그런데 지우는 나를 골랐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인형을. (52~55p)

원관념: 달희 ㅏ 보조관념: ()
둘 사이의 공통점: ()

4-2. 4-1을 고려하여 <보기>에서 쓰인 비유적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해 봅시다.

여기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적절하다 /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 ▶ 세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O / X)
- ▶ 하루의 품종은 래브라도리트리버였다. (O / X)
- ▶ 피자집 사장 아저씨가 고함을 지르자 세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O / X)
- ▶ 이 작품에서 하루가 짓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O / X)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2-1. 세희가 찍은 손바닥 편지에 쓰인 잉크색을 노란색으로 설정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언니가 너한테 보내는 편지야.”

하루는 까만 눈동자로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글을 읽을 수는 없어도 하루는 아마 언니가 쓴 편지를 이해했을 거다. 거기엔 노란색 잉크로 언니의 손바닥이 찍혀 있었으니까. (92p)

지도 TIP

작품을 꼼꼼히 읽는 데 지도의 초점을 준다면 작품 앞부분에 제시된 하루와 노랑의 관련성을 찾아보게 하여 답을 유추하도록 지도합니다.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해 봄으로써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면 하루나 세희의 성격이나 에피소드를 ‘노랑’이 지닌 이미지와 연결 지어보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2-2. 하루가 찍은 잉크는 어떤 색일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안 주셔도 돼요. 하루가 뭐라고 썼는지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썼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하루의 편지가 팔랑거리며 흔들렸다. 언니는 어떠한 원망의 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다.

“발바닥에 잉크를 묻혀 편지지에 찍었어요. 하루는 글자를 모르니까요.”

“어?” (86p)

지도 TIP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하루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어울리는 색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보기>는 작품 속에 드러난 세희의 성장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들어갈 장면을 연결 지어 서술해 봅시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하아암.”

벌써 몇 번째 하품인지 모르겠다. 어찌나 입을 크게 벌렸는지 입꼬리가 찢어질 것처럼 쓰라렸다. 저 승에서 보낸 편지를 전달하느라 날밤을 새웠더니 온종일 졸음이 쏟아졌다.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중간을 유지하던 성적마저 더 떨어지게 생겼다.

“어제 잠 못 잤어?”

앞자리에서 들린 목소리에 반쯤 감긴 눈을 떴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아니” 하고 대답했지만 그 와중에도 눈이 감졌다. 꾸벅꾸벅 무거운 머리가 자꾸만 아래로 떨어졌다. 몽롱한 의식 저편에서 소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희는 왜 저래?”

“잠을 못 잤나 봐. 오늘 수업 시간에도 계속 졸더니 아직도 이러네.” (98~99p)

1-1. 우체부 일이 달희에 일상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정리하고, 달희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1-2. 여러분이 작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체부 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면 어떤 설정을 넣을 수 있을지 자유롭게 상상해 봅시다.

2. 영상을 참고하여 지우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써봅시다.

“애들이 나를 재수 없어 한다는 건 알고 있어.”

“어, 지우야…….”

소현의 목소리가 난감한 기색을 띠었다. 하지만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다.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몰래 내 욕을 하다가 들킨 적도 여러 번이거든.”

“그랬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반 애들이 내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잘난 척한다며 험담을 했어.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선생님이 나만 편애한다며 같이 내 욕을 하는데, 거기서 달희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말을 하긴 했다.”

“지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났잖아. 나는 지우가 부럽던데.”라고. 물론 아무도 달희 말에 대꾸를 안 했지만.” (104p)

▶ 참고 동영상 : 틈만 나면 남 욕하는 사람, 대체 왜 그럴까? 뒷담화 대처, ‘이렇게’만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d6qvZyEYSQ&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8>

3.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나는 서둘러 피아노 소리를 따라갔다. 해수욕장 한쪽 구석에 설치된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바람에 필력은 현수막을 보니 내일 해수욕장에서 공연이 열리는 모양이었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에서 남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화난 표정과 달리 밤공기를 가르는데 선율은 더없이 다정하고 온화했다.

“이 곡 제목이 뭐야?”

연주가 멈추길 기다렸다가 슬며시 말을 걸었다. 민재는 목소리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나 보다. 나를 힐끗 노려보는 눈빛이 제법 사나웠다.

“드뷔시의 <달빛>.”

그러면서도 착실히 대답을 해주는 게 어쩐지 우스웠다.

“뭐야? 왜 웃어? 내가 웃겨?”

민재가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란 자신감과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사명감은 평소와 다른 용기를 부여했다. 그래서 나는 민재의 날 선 눈빛을 피해 도망가는 대신 당당하게 대꾸했다.

“아까도 여기서 연주했지? 나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누가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어.”

내 말에 민재는 획 하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손에 든 봉투를 건넸다.

“아주머니는 나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 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계셔. 그래서 네게 편지를 쓰셨고, 나는 그걸 전해주러 온 거야. 읽을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전해주는 것까지가 내 일이니까. 네가 읽든 말든 나완 상관없어. (120~121p)

3-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소설 속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 ▶ 참고 동영상: [조성진 Seong-Jin Cho] Debussy Clair de lune 드뷔시 달빛
https://www.youtube.com/watch?v=97_VJve7UVc

3-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작가가 민재의 연주곡을 드뷔시의 <달빛>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추측해 봅시다.

- ▶ 참고 동영상: 피아노 명곡, 드뷔시 '달빛'의 숨겨진 스토리
<https://www.youtube.com/watch?v=-fLjmlOxmWY&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10>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간단 퀴즈]

- ▶ 김 씨 아저씨 아들의 이름은?
- ▶ 김 씨 아저씨가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 ▶ 달희가 김 씨 아저씨의 편지를 전해줄 수 없는 이유는?
- ▶ 문지기가 문을 통과하는 달희를 막아선 이유는?
- ▶ 달희가 우체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2.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1>

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었다. 친해지고 싶은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어볼걸, 시험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걸, 엄마에게 짜증 내지 말걸, 그리고 피자 가게 앞에서 하은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걸. 그런데 알고 보니 후회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었다. 편지를 배달하며 만난 망자들은 나와 비슷한 후회를 안고 있었다.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몇 번 실패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걸. (152~153p)

<보기2>

망자들이 할아버지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얼굴에도 한 줌의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살아서 지은 악행이 많을까 선행이 많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얼굴들이 꽤 뒤숭숭해 보였다. 넓은 로비에 수 많은 망자가 모여 있었지만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만약 나라면? 만약 내가 저기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후회할까?’
(158~159p)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할아버지를 잃고 상심에 빠진 지우를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결국 돌아가셨구나. 지우가 많이 슬프겠다.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그 말에 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말주변이 좋은 소현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다는 게 놀라웠던 탓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사실에 웬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155p)

▶ 참고 동영상: 제대로 위로하는 법, 위로할 때 주의할 점

<https://www.youtube.com/watch?v=H1iTwCK7i9k>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밑줄 친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검붉은색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구름이는 세희 언니 발밑에 얇전히 엎드린 채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열게 미소 띤 얼굴로 구름이를 힐끗거렸다. 그러나 구름인 관심 없는 듯 앞발에 턱을 올리고 두 눈을 느리게 깜빡였다. 나는 하나씩 채워지는 자리를 보며 세희 언니에게 귓속말을 했다. “언니도 콩쿠르에 올 줄은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출전해요? 우리는 이지우라고, 같은 반 친구를 응원하러 왔어요.”

“음,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미안한 사람.”

아,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208p)

낮선 목소리가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고개를 돌려 보니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반짝이는 눈으로 무대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학생은 마치 홀린 듯이 조명이 켜진 무대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나도 저런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어?’ (210p)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차사의 행동을 비판해 봅시다.

“제가 원래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승의 우체부로 선택받은 사람은 서울에 사는 배달희 씨가 아니라 강릉에 사는 배달희 씨였습니다. 동명이인이라 착각하는 바람에 아무 상관없는 배달희 씨를 우체부로 점지하고 말았습니다.” <중략> “카드 키를 돌려주십시오.”

그 말이 당장 이곳에서 사라지라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차사를 노려보며 주섬주섬 주머니 속에서 카드 키를 꺼냈다.

“음……?”

차사는 카드를 꼭 쥐고 놓지 않는 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돌려주십시오, 배달희 씨. 이걸 더 이상 배달희 씨의 카드가 아닙니다.” (166~168p)

“김병태 씨는 지금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덕분에 저승의 시스템이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기억을 잃지 않는 망자들이 종종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뭘, 저승의 우체부가 꼭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나는 차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결국 두 팔을 늘어뜨린 차사가 “솔직하게 말해서”라며 뒷말을 이었다.

“배달희 씨가 일을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이승에 미련이 남은 망자들을 어떤 잡음도 없이 모두 저승으로 보냈죠. 심지어 누락되었던 김병태 씨를 발견해 재판장으로 보내기도 했고 말입니다. 우리는 배달희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같이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212~213p)

- ▶ 관련 동영상: 알바 경험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노동법)

<https://www.youtube.com/watch?v=SMVq1Hs9Qew>

3. 다음에서 드러나는 달희의 태도 변화를 정리하고 이와 같이 달희의 행동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을 작품 전체에서 찾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나는 아저씨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 세희 언니 말처럼 안내전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었고, 그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여기서 언니의 편을 들기엔 아저씨가 너무 무서웠다.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보고도 못 본 척 발길을 돌렸다. (25~26p)



“안내전은 공공장소와 식당,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선수를 쳤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아주머니가 이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아주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을 주었다.

“배짱이 좋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두 번 다시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집에 돌아가 이불만 뽕뽕 차는 건 사양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향하는 게 느껴졌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주먹을 꼭 움켜쥐며 타인의 시선을 견뎠다. (205~206p)

지도 TIP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달희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장면은 작품 전체에서 두루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장면을 찾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등장인물의 성장을 그려내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는 책 『초바키 문구점』에 등장하는 대필가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동영상: [지식] 오가와 이토의 [초바키 문구점] / YTN 라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dRKU32-OaK8>

※ 여러분은 대필가라고, 등장인물은 대필을 의뢰하는 손님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다음 등장인물 중 누구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싶는지 선택해 칸에 V표시해 봅시다.

- ▶ 짝1 : 하루 - 세희
- ▶ 짝2 : 민재 - 민재 엄마 (명지은)
- ▶ 짝3 : 지우 - 지우 할아버지 (이대평)
- ▶ 짝4 : 김 씨 아저씨 (김병태) - 김 씨 아저씨 아들 (김정우)

<input type="checkbox"/>	하루	수신자 : 세희
<input type="checkbox"/>	세희	수신자 : 하루
<input type="checkbox"/>	민재 엄마 (명지은)	수신자 : 민재
<input type="checkbox"/>	민재	수신자 : 민재 엄마 (명지은)
<input type="checkbox"/>	지우	수신자 : 지우 할아버지 (이대평)
<input type="checkbox"/>	지우 할아버지 (이대평)	수신자 : 지우
<input type="checkbox"/>	김 씨 아저씨 (김병태)	수신자 : 김 씨 아저씨 아들 (김정우)
<input type="checkbox"/>	김 씨 아저씨 아들 (김정우)	수신자 : 김 씨 아저씨 (김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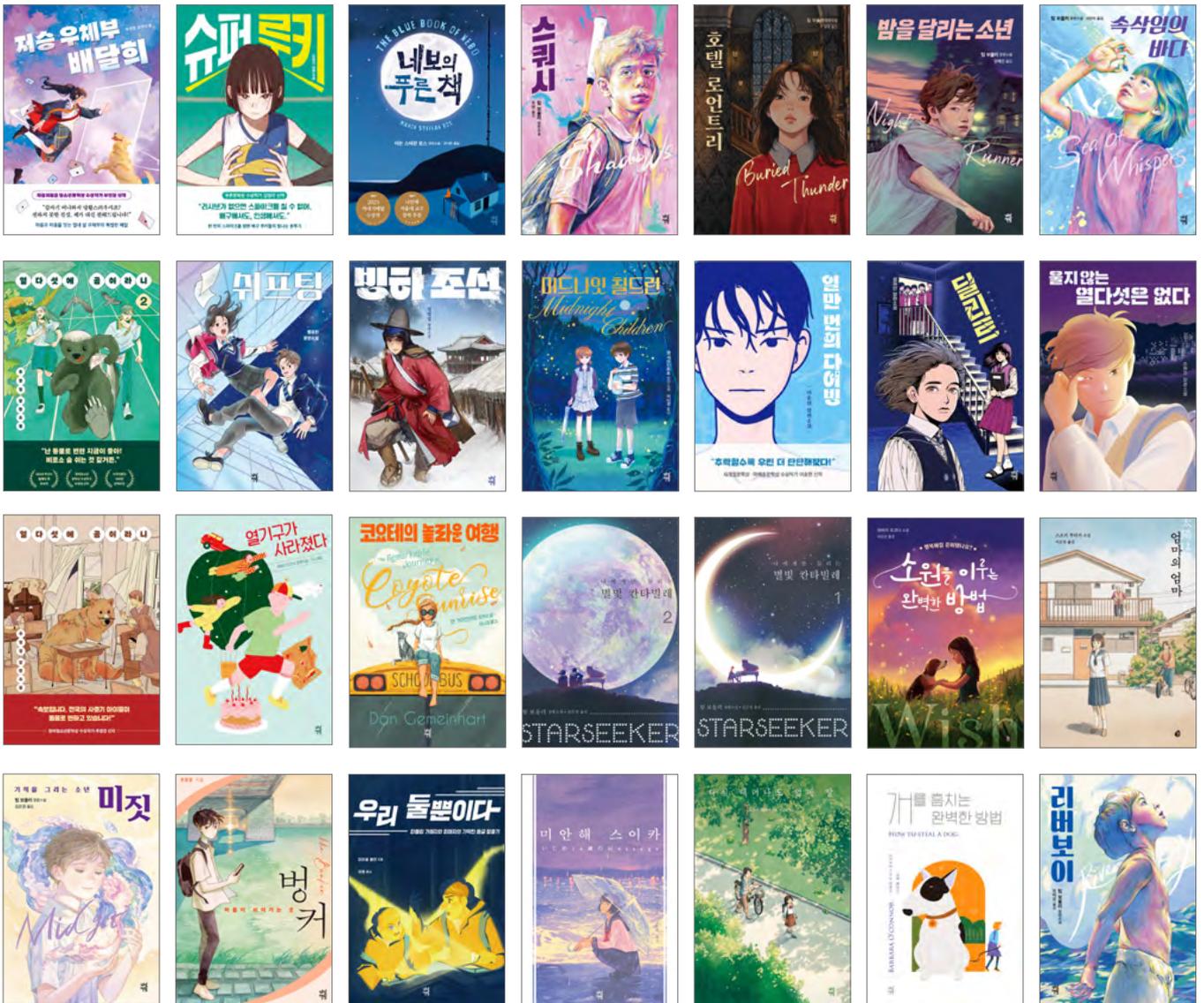
2. 1에서 고른 의뢰인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시 읽어 봅시다.

3. 관련 에피소드를 고려하여 대필 편지에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봅시다.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 | | |
|----------------------------|----------------------------------|--------------------------------|
| 29 저승 우체부 배달희 부연정 장편소설 | 19 미드나잇 칠드런 맨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28 슈퍼 루키 김영리 장편소설 | 18 일만 번의 다이빙 이송현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키 루리가 장편소설 |
| 27 네보의 푸른 책 마논 스테판 로스 장편소설 | 17 달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 08 미짓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26 스쿼시 팀 보올러 장편소설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07 병카: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 25 호텔 로엔트리 팀 보올러 장편소설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 24 밤을 달리는 소년 팀 보올러 장편소설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 23 속삭임의 바다 팀 보올러 장편소설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맨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키 루리가 장편소설 |
| 22 열다섯에 곰이라니2 팀 보올러 장편소설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21 슈프팅 범유진 장편소설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20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 | |